

뒤돌아본 32년

어떤 32년 목회길

어떻게 왔냐고 묻는다면

난! 단호히 말할 수 있다

오직!

내 사랑 목화꽃 당신, 예수와 함께 했다고

녹슨 청동 초석이 목화꽃 당신 예수께 잡혀 검이 되었다오

목화꽃 성령이 솟돌이 되어 주었기에

녹슬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었다오

내가 검이라면

목화꽃 당신은 솟돌이 되어 갈리고 갈려도 항상 기뻐했다고

내가 세상 홍수 속에 흙탕물 되어도

목화꽃 당신은 큰 모래 잔모래로 날 정화시키며

흙더미 쓰시며 즐겁게 노래했다고

목화꽃 성령이 오대양 육대주 나의 비행기, 열차, 군함 되어

나대신 폭풍 한설 눈보라 찜통을 막아주며

나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 주었다고

목화꽃 당신이 강이라면 나를 나룻배에 싣고 콧노래 부르게 했다고

내 마음 가뭄 속에 울며 타들어갈 때

목화꽃 당신이 단비로 촉촉이 적셔주는 참사랑이었다오

내가 눈 덮인 산야 물 없는 사막을 걸을 때

목화꽃 당신은 내 신발로 가시를 누르며 함께 걷고 고생도 함께 했다고

멀고도 긴 행로 32년

목화꽃 당신이 지팡이 되어주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오

나의 영원한 사랑 목화꽃 당신 예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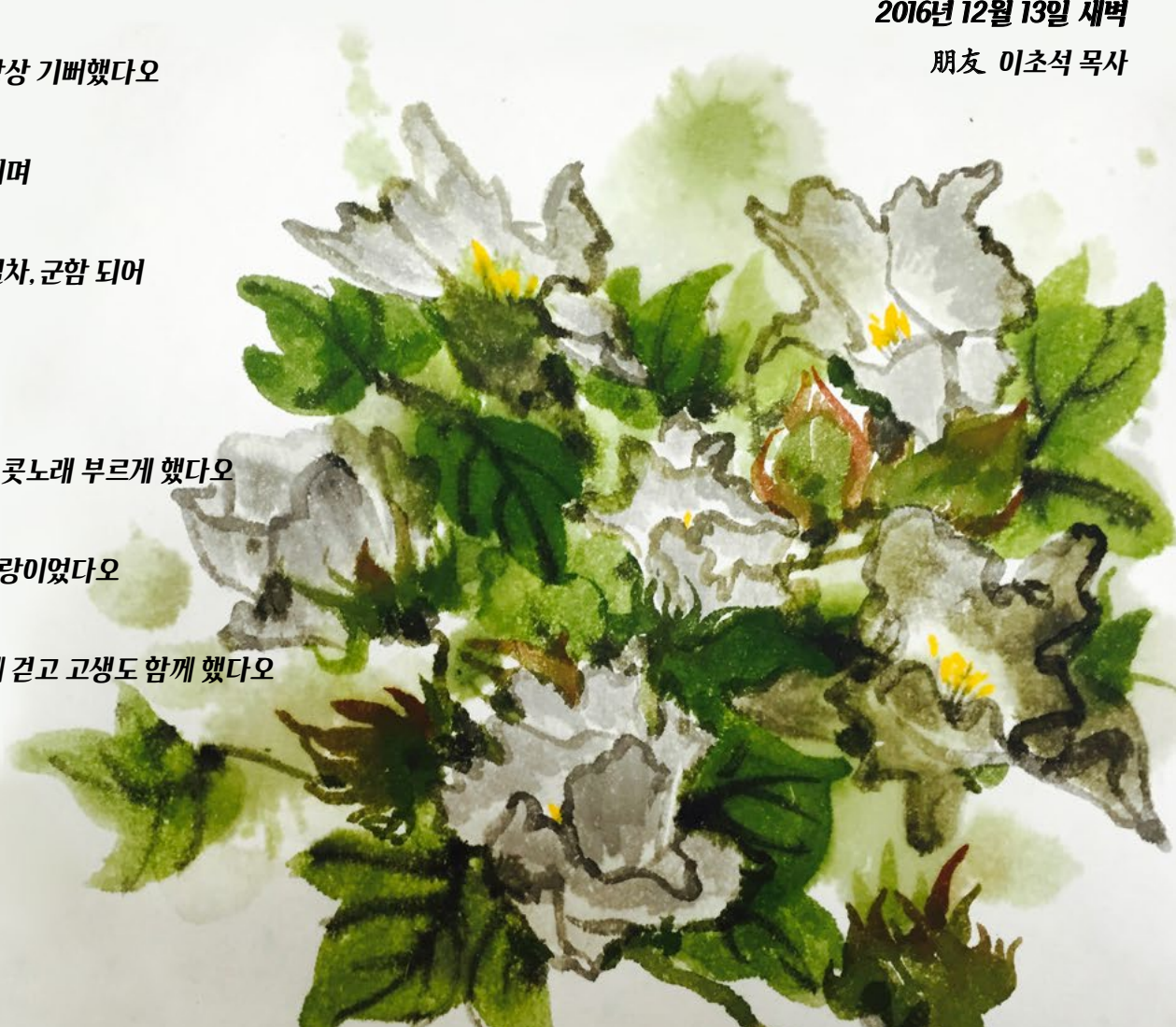
난 그대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할 아무 가치가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영원한 내 사랑

목화꽃 당신, 예수!

2016년 12월 13일 새벽

朋友 이초석 목사



봉우컬럼

그날을 늘 기다리며

미국에서 오신 김요한 목사님을 영접하러 새벽에 공항에 나갔다. 내 목회에 공항까지 영접을 나간 일은 처음이었다. 의자에 앉아있던 나는 비행기가 착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게이트 앞에서 직원들과 환영 현수막을 들고 기다렸다.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문이 열렸다 닫히

곤했다. 그때마다 나는 김 목사님이 언제 나오시나 확인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목사가, 장로가, 성도가 안 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었다. 소름이 돋았다.

언젠가 대구집회를 다녀오다가 구미 비행장에 1분 늦게 도착해서 비행기를 못 탄 적이 있다. 1분 늦었다고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나는 만일 이것이 천국문이 었다면 어떡할 뻔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천국까지 잘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사람비위 맞추지 않고, 때론 격하게 몰아붙이고, 쓴 소리도 하고, 거친 소리도 한다. 한 때 '나에게 맞을래, 주님에게 맞을래?' 하면서 때린 적도 있다. 내 성격이 사나워서가 아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행여 천국에서 못 만날까봐, 천국행 비행기 못 탈까봐 좁은 길로 모는 것이다. 천국에서 열씨안고 기쁨을 누리고, 천국에서 열 고을, 다섯 고을의 왕이 되라고 그런 것이다.

나의 소원은 주님과 한 상에 앉아 떡을 떼며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사랑하던 목사라도, 장로라도 건지지 못한다. 그저 행한 대로 심판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지금, 성도들을 잘 이끌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이다. 그렇게 32년을 왔다. 그리고 앞으로 30년을 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상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지금처럼 변치 말고 함께 갑시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16:15~20)

독스 연장은 폐기처분 된다

사람들은 과학자나 의학자를 믿고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결과로 말한 것을 대부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목사의 말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말은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고로 청각적인 감동보다 시각적인 감동이 큰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앓은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예수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요4:48). 백 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서 먼저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것이고,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마음 문을 열 때, 거기에 말씀을 심는 겁니다. 땅을 잘 뒤집은 다음에 씨를 뿌려야지요. 보여주는 목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도토리 속에 참나무 있고 사과 씨 안에 사과나무 있다

여러분, 제가 해외에 나가 집회할 때 “오늘 밤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가짜 목사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라이선스(license)를 지녔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발급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태권도 사범이 되려고 해도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목사에게도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 16:17~18).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것이 믿는 자의 표적, 곧 라이선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수 이

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합니다. 귀신을 안 쫓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지 않습니다. 왜? 자신도 없을 뿐 아니라 이단이라 그럴까봐, 혹은 유별나다 할까봐 안합니다. 그러나 본시 유별나야 뭐든 한 자락 하는 겁니다. 유별나지 않고 우등생 되는 것 못 봤고, 유별나지 않고 인물 되는 것 못 봤습니다.

또 안하는 이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는 손을 얹었는데 귀신이 안 나가거나 병이 안 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겁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책임 임을 지지



총회장 이초석 목사

려 합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 나가고 안 가는 건 예수님 책임입니다. 명령권자가 책임도 지는 것이 당연하죠. 제가 이교단의 책임자로서 행정목사에게 일을 지시했다면 그 책임이 행정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게 있는 것이듯 말입니다. 저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때 이초석의 이름으로 하지 않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예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이선스는 목사들만의 전매특허가 아닙니다. 믿는 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장교만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패합니다. 사병들도 다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성능의 무기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세요. 악한 것을 대적하세요. 그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그 시대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역

사가 일어났는데, 이 시대 우리에게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연장에 독이 슬었기 때문입니다. 독스 칼로 뭘 자를 수 있을까요? 독스 총은 발사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독스 연장은 잘 닦고 갈아야 하는 겁니다. 독스 연장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들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전10:10). 군대에서 저녁 점호 전에 항상 총구를 닦고 기름 치지 않습니까? 그래야 언제든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이 나가게 됩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력이 없는 것은 총구가 녹슬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녹슬었기 때문입니다. 문입니다. 전쟁

터에서 적군이 아군의 계급장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기보고 도망가는 것인데 무기가 녹슬었다면, 더는 아예 무기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적의 포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연장을 닦는 방법이 마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신들려 물과 불에 자주 넘어지며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를 제자들이 어찌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자 상심에 찬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

이제 이 시대의 목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능력이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구에 독이 슬었는데 총알이 어떻게 나갑니까? 무기가 녹슬었는데 상대를 어떻게 죽입니까? 귀신의 밥이나 안 되면 다행이지요.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지므로 바울의 옷자

락만 만져도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머리에 손만 얹어도 병이 떠나는 겁니다. 아이가 방아쇠를 당겨도, 할머니가 당겨도, 초신자가 당겨도 총알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 기도하는 것과 세 시간 기도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집회 전에 일곱 시간씩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만 원짜리와 오만 원짜리가 차이가 있듯, 기관단총과 한 발 쏘는 단발총이 다르듯 말입니다.

위대한 결단력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돈 많이 벌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공부 잘해서 출세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표적을 나타내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막16:20).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종들이 예수님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여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떠다주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을 아시지요? 귀신을 쫓으려면 쫓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려면 얹는 겁니다. 뭘 따집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자식들이 아비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세요. 한 번 쫓아서 안 나가면 두 번 쫓으세요. 예수님도 두 번 쫓으셨는데 우리가 열 번하면 어떻습니까? 달인이 됩니까? 반복하면 달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보이는 목회를 하고, 보이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로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코스톨라니의 개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코스톨라니의 개 (The Dog of Kostolany)’는 투자의 대가 코스톨라니가 거시경제 지표, 실적 같은 근본 요인과 주가간의 관계를 ‘개를 데리고 산책에 나선 사람’에 비유하면서 널리 퍼졌습니다. 개가 주인보다 앞서거나 뒤쳐지기도 하지만 결국 주인에게 돌아오는 모습을 예로 들면서 ‘주가(개)는 실적(주인)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입니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 보통 개들이 그렇듯 신이 나서 주인보다 앞서 달려가다가 조금 멀어진다면 주인을 돌아본다. 주인이 뒤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앞으로 달려가다가 자기가 주인보다 많이 달려온 것을 보곤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어떤 때는 주인보다 뒤쳐지기도 한다. 그러다 너무 처지면 또 주인에게 짹 짹 달려간다. 길을 가는 동안 개와 주인은 이런 움직임을 반복한다. 물론 주인보다 개가 훨씬 많이 움직인다. 그렇게 둘은 산책을 하면서 같은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주식시장이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지만 한 두 걸음 멈추기도 하고 뒷걸음질 치기도 한다. 물론 그 사이 주식시장은 백 번도 더 전진 혹은 후진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경제와 주식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나 때때로 그 사이 사이에 이 둘은 서로가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가기도 한다.”는 것이 코스톨라니의 설명입니다.

경제와 주식시장도 항상 평행으로 진행되

지는 않습니다만 개와 주인처럼 장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기업이익이 성장하지 않으면 주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가 너무 멀리 앞서 나가 주인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경우는 어떤가요? 개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늦더라도 개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경제는 앞으로 나아가지만, 주식시장은 결과적으로 경제와 보조를 맞추면서도 때때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한다고 말합니다. 주식시장이 경제를 때 순간 정확히 반영하는 온도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국 개가 주인에게 돌아오듯, 주식시장은 언젠가는 경제를 반영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경제성이나 전망에 비해 주식시장이 뒤쳐졌다면 주식에 투자하라는 것이지요.

신앙 안에서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이 나서 앞서가던 우리는 어느 새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져 간구하여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주님을 홀로 계시게 한 것은 항상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늘 ‘나는 예수님의 행복한 노예!’ 라고 하시듯 주인을 떠나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오직 길 되신 예수님(요14:6), 참 좋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는(신8:6)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경
lmkwdf@hotmail.com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 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주 듣고 따라 불렀던 찬양 가사의 일부입니다. 가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구구절절 녹아있는 명곡이지요.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미움과 다툼, 내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 일을 시키는 집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일찍부터 한 데나리온을 얻기 위해 일한 사람들이 제 십일 시, 지금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집 주인을 원망합니다.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꼬박 하루 종일 일한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던 거죠. 그랬더니 집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마20:13~15)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다시 세 번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 그의 눈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다른 한 제자가 눈에 밟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요 21:22).

우리도 때론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처럼, 또 베드로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늦게 된 자가 나보다 먼저 되면 미워하고, 나보다 더 사랑받고 복 받는 것 같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프리카 속담에 ‘한 어린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세상 속에서 온전히 있기 위해서는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을 대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눅 6:32)는 황금률에서처럼 자기 자신을 대접하는 것은 남에게 대접함으로도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려하고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백인백색, 지구상에는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수만명의 개성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배려하고 섬긴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불쾌함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

그래서 배려의 기본은 관심과 애정이다. 그 사람에게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 어떻게 하는 것이 대접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 내 뜻대로 상대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배려하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자들이 있다. 자기 의지대로 기도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신 예수님처럼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자신의 의지와 뜻은 제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려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섬기는 것이 아닐까.

김성일
cre8tor@naver.com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예수중심교단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심 참 감사합니다. 그중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은 32년 전, 사랑의 종 총회장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입니다. 그 종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는 그 종에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본토진척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시시때때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사랑을 고백할 때는 다윗 저리가라 할 정도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종에게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라는 말을 늘 상기시키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

로 나의 쓸 것을 세세하게 구하고 받드

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 종이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기에 우리 또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 종에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가난한 자건 부자건, 병이 들었건 건강하건 이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편견 없이 한 명 한 명 진심을 다하며 사랑하고 축복기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매일 아침 카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는 정성 또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전무후무 유일무이한 당신의 종을 예수중심교단에 보내주심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이 종에게 청년의 기력을 허락하시어 건강하게 우리 예수중심교단에서 120세까지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분이 오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 축하메시지 ::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예수중심으로 세계를 이끄세요!

할렐루야! 총회장 되시는 이초석 목사님 이하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이번예 예수중심교회와 기도원에 가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새 한국교회에 기도가 메말라가고, 성령의 기름부음이 중지된 상태라 안타까웠는데,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기름부음이 있는 예수중심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임을 느꼈습니다.

올 때 선물로 주신 영상을 돌아와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받아서였습니다.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장로님들을 위시한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열심히 찬양하면서 뛰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목사님과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섬기는 것을 볼 때 ‘아!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살아있구나, 예수중심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겠구나!’ 하는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이번 32주년을 기해서 더욱 큰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중심교회가

되길 바라고, 전 세계를 예수중심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에도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초석 목사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주안에서 항상 기도할 때 만나겠습니다. 또 내년에 가서 배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LA 세계이가페선교교회 김요한 목사



성역 32주년을 축하드리며

나는 14살에 교회라는 곳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다. 그 동안 별 믿음은 없었지만,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니며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참석하기도 했고, 내가 변화된 뒤로는 더 많은 국내외 유명하시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직간접으로 대부분 보거나 들어왔다.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는 격이지만, 우리 목사님처럼 열정적으로 진실되게 온몸을 다하여 설교하시는 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하다. 목사님의 열정은 영적 세계에까지 소문난 열정이다. 목회 32주년, 연세는 70을 바라보시는 나이, 여전히 변함없는 열정적 설교와 목회스타일은 가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목사님께서 40대 중반에 30대 후반인 나에게 “이시대야, 아무아무교회 〇〇〇 목사님을 보라. 저분이 그렇게 역사를 일으

키시더니 나이가 50 넘으시니까 힘이 부쳐 못하시는 것을 보라. 우리도 50 넘으면 이런 사역은 쉽지 않으니깐 젊어서 힘을 있을 때 최선을 다하자.” 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50을 훌쩍 넘기고 60을 넘어 70 가까이 되도록 정작 본인은 변함이 없으시다. 여전히 똑같이 역사하신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30주년을 맞으면서 ‘앞으로 30년을 더 뛰겠다’ 하시고 어느새 2년을 지내셨다. 다윗의 기도가 생각난다.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며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시 71:9~18).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함을 나타내시리라”(시92:14). 지난 추수감사주일 총동원 때에 예배 후에 체육관 옆 식당에 식사를 하러갔더니, 전도하고 식사대접도 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셨다. 내가 들어서니 옆 테이블에 한 권

사님이 동생을 전도해서 두 번째 오셨다. 다른 교회를 조금 다니셨다는 그 남동생이 “저런 목사님은 1세기에 한번 나올까말까 하신 분이이라며 건강하셔야 된다.”고 하신다. 외국집회실황에 그곳 사람들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딱 벌리고 다물 줄 모르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감동스럽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의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의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마13:17). “복 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 복 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으로다”(왕상10:8). 솔로몬의 신복들을 시바 여왕은 부러워했다. 우린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인가. 복이 복인 줄 알면 그 복이 진짜 복이 된다. 우리 목사님과 한 시대에 한 교단 안에 있는 것을 무한 감사드리며 성역 3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예수중심교회 담임 이시대 목사

:: 생활속의 잠언 ::

‘끝’이라 하지 말자

우리는 가끔 가까운 사람들과 다룰 때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길 때, 흔히 “너와는 끝이다!” 라는 표현을 한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그리 쉽게 끝나지 않는다. 정말 사랑했던 두 남녀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별을 선언하고 돌아섰다가도 다시 만나는 것처럼, 회복할 수 있는 틈과 여지는 항상 두고 살아야 한다. 크리스천의 생활도 마찬가지다.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몰려올 때, “내가 다시 교회를 나가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거나 혹은 탕자처럼 세상이 좋아서 두 번 다시 집으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떠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침 뱀은 우물, 사흘이면 도로 먹는다’고 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끝나는 것이 쉽지 않을진대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해 무엇 할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끝이라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하신지라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부모 자식 간도 천륜이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인 감정으로 정리될 것이겠는가. 십 수 년 전 남편과 극렬한 분쟁이 있던 시절, “내가 다시 당신을 보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두 번 다시 안 볼 것을 선언했지만, 일 년도 안 되어 다시 남편과 환하게 웃으면서 만났던 일이 기억난다. 교회를 다니다 시험에 들어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면서 교회나 주님은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여겼지만,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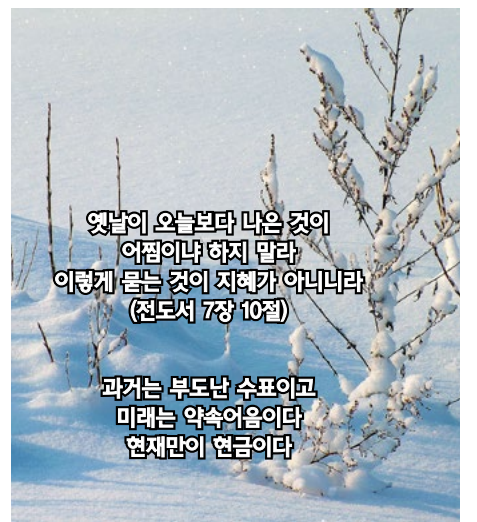
탕자처럼 주님 앞으로 돌아온 일도 있다. 그러므로 앞날은 장담할 수 없으니 극단적인 표현은 삼가자. 더욱 하나님께는 그런 말을 아예 하지 말자. 정말로 하나님이 뒤돌아서서 ‘끝’이라고 하면 어찌 되겠는가.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린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끝’이라 하시고 400년 동안 등을 돌리신 하나님, 성경은 그것을 암흑기라 부른다. 또 하나님이 사울에게 ‘끝’이라 했더니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사람에게 ‘끝’이라는 극단적인 말은 하지 말자. 더욱 하나님께는 삼가자. 극단적인 말은 극단적인 결과를 낳고, 생사화복이 우리의 입에 달렸으니까.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굳은살과 티눈

우리의 발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 발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중 하나가 굳은살이다. 굳은살은 죽은 피부가 쌓여 피부가 두껍게 된 것을 말하며, 압박이나 마찰이 같은 부위에 계속 가해지면 굳은살이 생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은살로 인해 처음 발바닥에 통증이 왔을 때 그냥 지나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굳은살은 더 확대되고 더 단단해져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가져온다. 굳은살은 주위 살에 비해 매우 딱딱하므로 이 굳은살이 주위 조직을 눌러주는 상태가 되어 마치 신발 속에 작은 돌을 넣고 걷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된다. 굳은살을 없애는 방법은 먼저 마찰이나 압력이 피부에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발에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거나 압력이 쉽게 분산될 수 있게 제작된 신발을 신는 것이 좋고 장시간 걷거나 뛰는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압력이 심한 부위에 쿠션패드를 부착해서 특정부위에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뼈의 돌출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미 생긴 굳은살은 압력이나 마찰이 제거되면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굳은살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각질연화 및 용해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각질을 용해시켜주는 살리실산연고나 젯산로션 등이 있다. 티눈은 굳은살과 마찬가지로 마찰과 압력 같은 기계적 자극으로 생기는데 국소부위에 힘이 집중되면 티눈이 생기고 1cm 이상의 비교적 넓은 부위에 힘이 작용하면 굳은살이 생긴다. 티눈은 발가락 사이와 신발이 닿는 엄지나 새끼발가락 위에 잘 생긴다. 흔한 원인으로는 잘못된 걸음걸이나 발가락이 변형되어 있거나 어느 특정 부위가 신발에 지속적으로 눌릴 때, 조이는 양말이나 스타킹, 신발안의 봉합선이 발가락과 반복적으로 마찰될 경우, 오랫동안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발생하게 된다. 티눈을 칼로 잘라내는 것은 위험하며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뜨거운 물에 발을 푹 담가 티눈을 불린 다음 눈썹 가위로 살짝 잘라낼 수 있다. “우리가 몸의 털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고전12:23).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쩔이나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전도서 7장 10절)

과거는 부도난 수표이고
미래는 약속어음이다
현재만이 현금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신년축복 기도성회

2017년 1월 3일(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의 02-533-9191